

근대 척독집 간행 현황과 시대별 변화 양상

- 1900~1950년대 간행된 척독집을 중심으로* -

홍인숙*

<차례>

1. 서론
2. 시대별 주요 근대 척독집의 저자 및 체제 구성
 - 1) 1900~1910년대
 - 2) 1920~1930년대
 - 3) 1940~1950년대
3. 시대별 흐름에 따른 근대 척독집의 변화 양상
 - 1) 표기 체계 및 권장되는 한문 편지규범의 변화
 - 2) 전통 지식의 근대적 대중화 흐름 반영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00년대 이후 1950년대까지 꾸준히 발간된 근대 척독집의 시대별 간행 현황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척독집들의 저자에 대한 정보와 체제상 특징을 정리하고, 시대별 척독서들의 변화를 읽어보고자 하였다.

1900~10년대 척독집들은 전문적인 한문편지 교본을 표방한 책들로 분량도 500페이지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체제상으로는 '투식구 제시'와 '예문 제시'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순한문의 한문 편지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1920~30년대는 척독집의 대유행 시기라 할 만큼 많은 종류의 척독서들이 나온 시기로, 대부분 출판사 운영자들의 가계에서 많은 척독집 저자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척독서는 본격적인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32-2011-0786-1-2)

** 이화여대 국문과 강의전담

한문 편지교본이나 학습서라기보다는 가벼운 ‘편지예문집’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우리말 어순의 국한문체 문장의 편지 예문들을 싣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척독집들의 체제와 목차는 기존의 책 편집을 그대로 옮기거나 적당히 가감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책 내용이 공유되고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40~50년대는 근대 척독집의 쇠퇴기로, 앞 시기의 척독집 체제보다 국문의 기능과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었다.

우선 이러한 시대별 척독서들의 변화 양상은 곧 ‘권장되는 한문 편지규범의 변화’라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 1900~10년대에 장려된 한문편지 문장은 엄격하고 옛스러운 짧은 길이의 편지였지만, 20~30년대에는 우리말 어순에 따른 국한문체 문장에 한글 독음을 달고 있는 한문편지로 권장 문체가 바뀌고 있었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권장되는 한문편지의 기준에서 순한문 위주의 문체가 약화되는 경향과, 한글의 한문 보조학습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대별 척독서들의 두 번째 변화 양상은 ‘전통 지식의 근대적 대중화’라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척독집의 ‘부록’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 1900~1910년대 척독서의 부록들은 주로 초서로 된 중국의 유명 문인들의 편지들을 싣고 있었지만, 1920~30년대에는 동서양연대표와 상제례 중심의 서식들을 실었다. 이는 척독서들이 전통적 지식이 단편화되는 과정과 근대적 지식의 실용성에 대한 관심을 함께 담아내는 역할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앞으로의 근대 척독집 연구에서는 근대 시기 내내 척독서를 열렬하게 소비한 대중들의 욕망의 성격을 해명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근대 척독, 한문편지, 『척독완편』, 『척독대성』, 『신편척독대방』, 김우균, 현재, 지송옥, 표기체계, 전통지식.

1. 서론

1900년대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한문 편지규범집인 근대 척독집은 1940~50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출판 시장에서 소비되었던 단행본 장

르이다. 척독집을 교본으로 삼아 한문 편지를 쓰고 싶어 했던 대중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이 시기에 저작된 근대 척독집의 종류가 거의 백여 종에 달한다는 점¹⁾, 근대 서점들의 대표적인 수입원 역할을 한 장르가 척독집이었다 할 만큼 이 책들이 대부분 수차례씩 거듭하여 출판되었다는 점 등으로 짐작할 수 있다.²⁾

이러한 만큼 근대 척독집은 ‘한문 글쓰기의 규범과 지식의 대중화 문제’와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하는 장르이다. 그러나 한문학에서는 18~19세기 한문 편지규범집인 방각본 간찰교본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³⁾ 이 자료군의 후발 장르라 할 수 있는 근대 척독집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근대문학 쪽 연구에서는 ‘언문일치의 확립’과 ‘근대적 글쓰기 교육’이라는 거대한 문제의식의 틀에서 근대 매체에서의 서간문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일련의 연구가 있다.⁴⁾ 이들 중에서 근

-
- 1) 일제시대 민간 발행물들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방효순의 연구에 따르면 근대 시기 ‘편지서식 모음집’ 성격의 ‘尺牘書’는 총 161종이 발행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 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2000. 64면.
 - 2) 현재까지 발견된 근대 척독집들의 목록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박대현,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홍인숙, 「근대 척독집 연구-김우균의 『척독완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0. 12. 또한 근대 전반에 걸쳐 출판물 시장에서 척독집이라는 장르가 대중적으로 늘 큰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장르였다는 지적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천정환, 4장 「글쓰기와 연애편지의 시대- 삶의 새로운 양식으로서의 글쓰기」,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4.; 권용선, 4장 「편지, 일상의 재편과 ‘서간체’의 활용」, 『근대적 글쓰기의 탄생과 문학의 외부』, 한국학술정보, 2007.; 임상석, 「1920년대 작문교본, 『實地應用作文大方』의 국한문체 글쓰기와 한문 전통」, 『우리어문연구』 39집, 우리어문학회, 2011.1.
 - 3) 18~19세기에 간행된 한문 편지규범집인 『간식류편』, 『간독정요』, 『한훤차록』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김효경, 「18세기 간찰교본 簡式類編 연구」, 『奎章閣』 9집, 2003.; 김동준, 「簡牘精要 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류준경, 「방각본 간찰교본 연구」, 『漢文古典研究』 18, 2009.

대 척독집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김성수의 연구로, 그는 근대 척독류의 존재에 대해 ‘전반적인 서지작업이 어려울 정도로 생산, 유통의 규모가 대단했으며, 십수 판을 거듭한 베스트셀러도 적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또 그는 근대 척독의 성격에 대해서는 ‘중세적 전통의 서간규범과 명문장 예문 모음을 예시한 중세적 계몽기능’을 갖고 있으며, ‘한문 투식어의 격식화, 세분화가 강화된 것은 근대전환기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⁵⁾ 그러나 근대문학에서의 서간 연구의 중심은 ‘독본·강화류의 교재 및 신문·잡지 등 정간물’에 실린 서간문이나 근대적인 한글 서간집 텍스트에 있으므로, 한문 편지규범집인 근대 척독집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 하기는 어렵다.

이렇듯 근대 척독집에 대한 연구가 영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근대 척독집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문 편지교본 성격에서 비롯된 낮은 문예적 가치 때문이다. 이 자료군은 조선 후기 박지원, 이덕무 등이 창작한 예술적 성취도 높은 문예소품으로서의 척독과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18세기 후반 이후 간행된 대중적 방각본 편지교본인 『간식류편』, 『한훤차록』의 뒤를 잇는 자료이다. 이는 근대 척독집의 기본적 성격을 ‘속류화 된 상투적 편지문장 예문집’으로만 인식되게

4) 김경남, 「1920~30년대 편지글의 형식과 문체 변화」, 『겨레어문학』 41집, 겨레어문학회, 2008. 12 ;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양식 연구(1)- 근대 서간의 형성과 양식적 특징」, 『민족문화사연구』 39호, 민족문화사학회, 2009. 4 ;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양식 연구(2)- 근대 서간텍스트의 역사적 변천과 문학사적 위상」, 『현대소설연구』 4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12 ; 김성수, 「근대 초기의 서간과 글쓰기 교육- 독본, 척독, 서간집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4. ; 김성수, 「근대 서간의 매체별 존재양상과 기능」, 『현대문학의 연구』 4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5) 김성수, 「근대 초기의 서간과 글쓰기교육-독본, 척독, 서간집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4., 176면.

만들었고, 이는 곧 한문학 연구자들에게 그 문학적 수준과 연구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두 번째는 20세기 초반에 나온 한문학 자료라는 점 때문에,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의 전공영역에서 공히 쉽게 그 연구의 가치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00년을 전후하여 1940~50년대까지 출판되었던 근대 척독집은 고전 전공자에게는 한문학 쇠락기에 나온 말류화된 한문문장 학습서로 여겨졌을 것이며, 근대 전공자에게는 극단적인 한문 문어체와 난삽한 수사를 구사하는 근대 한문 특유의 문체가 연구에 큰 장벽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근대 척독집 자료군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한문학 쇠락기인 20세기의 한문학 자료로써의 연구 가치이다. 20세기 이후에도 한문학의 영향력은 개인 문집과 유교 경전과 족보의 활발한 간행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말기 한문학은 쇠퇴했다'는 단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다. 근대 한문은 조선시대의 그것처럼 상층 지식인들이 배타적으로 소유했던 고급 지식이자 구별된 지식으로서의 성격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시대의 한문 편지규범집인 근대 척독집은 그러한 근대 한문의 대중적 위상을 가늠하게 해주는 자료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근대 척독은 한문학의 쇠락기인 근대 시기에 '한문 글쓰기와 전통적 담론 생산'에 주력했던 이들의 의식 세계를 고찰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자, 한문이라는 문자 체계에 대한 대중의 욕망의 문제 등을 더 첨예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근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연구 가치이다. 근대 척독은 앞서 말했듯 190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꾸준히 다양한 종류와 판본으로 재인쇄를 거듭하며 출판되었다. 이는 근대 척독이라는 자료 내부

에서 1910년대에서 1940~50년대까지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료의 변화 양상을 뚜렷하게 읽어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1900년대 이후 각 시기 별로 모범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한문문장의 수준, 한문문장을 학습시키는 방법의 변화 등의 문제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문편지의 규범 변화 및 권장되는 편지문체의 규범 등과 같은 문제와 연관하여 한문-국한문-한글의 표기체계 사이의 긴장과 변화, 근대 문체로의 변화를 읽어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서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대 척독집의 간행 현황과 시대별 발간상황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900년대 이후 50여 년에 걸쳐 꾸준히 베스트셀러로 소비되었던 근대 척독집의 시대별 간행 흐름과 전체적인 자료상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또한 근대 척독집의 특징을 문자체계, 표기방식, 편집체계, 편찬의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 각 시대별 주요한 척독집의 저자, 전반적인 구성, 내용 면에서의 특징을 추출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발간 현황과 시대별 특징을 파악하고, 저자 및 체제 구성 면에서의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는 본 연구는 향후 근대 척독 연구에서 심화된 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2. 시대별 주요 근대 척독집의 저자 및 체제 구성

근대 척독집은 1900년대 김우균의 『척독완편』이 발간되고 대유행한 이후, 박문서관(博文書館), 신구서림(新舊書林), 덕흥서림(德興書林), 유일서관(唯一書館), 광동서국(光東書局), 대창서원(大昌書院) 등 근대 초기를 대표할 만한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척독집을 펴내면서

시중에 활발하게 소비, 유통되었다. 이 장에서는 각 시대별로 고찰 가능한 근대 척독집들의 목록을 제시하고⁶⁾, 제시된 척독집들을 중심으로⁷⁾ 주요 편저자 및 체제 구성 등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리하여 척독집 간행의 시대별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900~1910년대

1900~1910년대 척독집으로 현전하는 목록은 총 21종이며⁸⁾, 그 중 본 논문에서 살펴볼 이 시기의 주요 척독집은 다음의 6종이다.

- ①金雨均, 『尺牘完編』, 博文社, 1905.
- ②玄采, 『尺牘自解』, 大昌書院, 1913.
- ③韓興教, 『模範尺牘大方』, 京城書館, 1913.
- ④池松旭, 『新編尺牘大方』, 新舊書林, 1916.
- ⑤玄采, 『尺牘大成』, 大昌書院, 1917.
- ⑥鄭敬哲, 『京鄕通商旅行尺牘』, 廣文書市, 1919.

1900~1910년대는 ‘한문 편지규범집’으로서의 교본 성격을 가진 ‘근대

6) 각 대학도서관 사이트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검색을 종합하여 얻은, 현전하는 근대 척독집의 총목록은 홍인숙, 앞 논문, 2010. 12에서 이미 63종으로 밝혀놓았다. 이후 고서점 등의 경로를 통해 11종의 목록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총 74종의 근대 척독집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된 목록을 포함한 현전 근대 척독집 총 74종의 목록은 본 논문의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7) 본 논문에서 검토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척독집들은 독립기념관, 규장각 등 일부 대학 도서관과 기관 사이트 등에서 제공받은 원문이미지와 고서점을 통해 직접 실물을 확보한 경우를 위주로 선택되었음을 밝혀둔다. 대부분 대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근대 척독집들은 고서나 준고서로 지정되어 있어 복사나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 자료로서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8) 부록 참고.

척독집'이라는 장르가 처음 선보인 시기이다. 특히 1900년대에 출간된 ① 김우균의 『척독완편』(1905)은 그 선편을 잡은 최초의 저작으로 전체 판매량 면에서 1900~1910년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후 근대 척독집이라는 자료군 전체를 통틀어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저작이다.⁹⁾ 이후 1910년대는 김우균의 척독집에 자극을 받아 그와 비슷한 형태와 규모의 척독집들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현전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 시기의 척독집 21종 중 본고에서 실제로 연구대상으로 다루고자 하는 위 6개의 목록 중에서도 ③한홍교의 『모범척독대방』과 ⑤현채의 『척독대성』은 완전히 동일한 책으로 판명되었다. 저자, 표제, 출판사명이 모두 상이하여 별개의 책으로 여겨져 왔으나 책 실물을 검토한 결과 완전히 같은 책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검토 대상이 되는 이 시기의 척독집은 ②현채의 『척독자해』, ③(=⑤)현채의 『척독대성』, ④지송욱의 『신편척독대방』, ⑥정경석의 『경향통상여행척독』의 네 종이다.

이 시기 근대 척독집의 주요 편저자인 김우균, 현채, 지송욱은 모두 중인 계층의 근대 저술가 겸 출판인으로, 특히 김우균은 훗날 직접 '동문서림(同文書林)'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척독완편』의 재판을 발행하였고, 지송욱은 '신구서림(新舊書林)'을 운영한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척독집 편저자와 출판사 운영자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밀착한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음 시기인

9) 『척독완편』은 김우균이 스승 최성학과 그 문하에서 함께 수학했던 동문들이 함께 편집에 참여해 완성한 최초의 근대 척독집으로, 1905년 박문사에서 출간된 이후 1908년 『신찬척독완편(新撰尺牘完編)』, 1912년 『증보척독완편(增補尺牘完編)』, 1916년 이후 1937년까지 『증보사전척독완편(增補字典尺牘完編)』으로 거듭하여 확장판을 냈다. 초판 이후 7차례 재판을 내고 3만 질 이상이 팔렸다고 할 만큼 근대 척독집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척독완편』의 체제와 저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밝혔으므로 본고에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홍인숙, 앞 논문, 2010.12.

1920~30년대에 가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위 검토 목록에서 우선 ②『척독자해』는 100면 정도의 얇은 책으로 현재가 전문적인 척독규범서인 『척독대성』을 집필하기 전에 지은 과도기적인 단계의 책으로 보인다. 체제는 맨 앞에 ‘사신정식(寫信程式)’이라는 제목 하에 남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모아놓은 ‘인기(人己)의 각당칭호(各黨稱號)’와 편지의 구절별 투식어구를 모아놓은 ‘구어활투(句語活套)’가 들어있으며, 그 뒤에는 집에 보내는 편지인 ‘가서류(家書類)’, 문안을 묻는 편지인 ‘문후류(問候類)’, 부탁을 하는 편지인 ‘청탁류(請託類)’ 등 21개의 편지의 주제별 분류에 따라 실제 예문들이 짝맞하게 소개되어 있다. 부록으로는 ‘동서양연대일람표(東西洋年代一覽表)’가 붙어있다. ⑥『경향통상여행척독』은 220면 정도의 중간 분량에 일반 편지규범집의 성격에 상인들의 구체적 상거래 물목과 상황을 첨부하고 있는 책으로, 근대 척독서의 실용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체제는 140면까지는 구절별 투식어를 모아놓은 부분과 주제별 예문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나뉘는 일반적인 척독집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후 80면에 걸쳐서 ‘상업급물리(商業及物理)’, ‘여행급운송(旅行及運送)’, ‘통신(通信)’ 등의 장 제목 하에 각 지역의 시장 위치와 시장이 열리는 날짜, 13도의 주요 항구 위치와 이름 소개, 수산물의 한자 이름, 주요 곡물·약재·과일·광물의 생산지 등을 소개하는 항목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까지의 흐름에서 볼 때 1910년대를 대표하는 시대적 대표성과 전형성을 가진 척독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③(=⑤)현재의 『척독대성』과 ④지송욱의 『신편척독대방』이다. 각각의 분량은 『척독대성』의 경우 600면, 『신편척독대방』의 경우 480면 정도로, 김우균의 『척독완편』과 비슷한 규모의 전문 척독서를 표방하고 있다. 먼저 ③(=⑤)현재의 『척독대성』의 체제 구성을 살펴보면 목차는 상중하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편(上編): 척독활투20류(尺牘活套二十類), 활투부4류(活套附四類), 기
답식투8칙(寄答式套八則), 고찰20칙(古札二十則), 구체척독
100칙(具體尺牘一百則), 외봉식2류(外封式二類), 각관응용
첩식10류(各款應用帖式十類), 인기각당칭호14류(人已各黨
稱呼十四類), 척독려구28류(尺牘麗句二十八類)

중편(中編): 분문척독900칙(分門尺牘九百則), 부학생응용척독47칙(附學
生應用具體尺牘四十七則)

하편(下編): 지나역대명인척독113칙(支那歷代名人尺牘一百十三則), 해
린척독86칙(海隣尺牘八十六則), 구식척독활투46류(舊式尺
牘活套四十六類), 부구체척독8칙(附具體尺牘八則), 부록
물류명목11칙(附錄物類名目十一則)

『척독대성』 상편의 체제는 편지의 ‘투식구 제시’ 부분과 그런 투식구들
을 조합하여 쓴 실제 예문을 보여주는 ‘예문 제시’ 부분이 번갈아 제시되
고 있다. 상편의 맨 앞에 있는 ‘척독활투’와 ‘활투부’는 편지의 서두부터
결미까지 차례대로 사용할 수 있는 투식구들을 모아 소개하였고, ‘기답식
투’와 ‘고찰’, ‘구체척독’에서는 실제 한 편의 편지 예문을 만들어 제시한
부분이다. ‘외봉식’, ‘각관응용첩식’, ‘인기각당칭호’, ‘척독려구’는 다시 편
지 형식 및 투식적 표현을 모아놓았다. 중편의 ‘분문척독’과 ‘부학생응용
척독’은 모두 편지 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편의 ‘지나역대명인척독’은
제갈량, 안진경, 소식 등 중국 역대 문인들의 유명한 서신들을, ‘해린척독’
은 역관 출신으로 널리 이름을 떨친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과 중국
문인들의 교유 서신을 실어놓았다.

『척독대성』은 경우에 따라 본문을 2단 및 3단 가로로 분할한 다양한

편집방식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투식구 제시’ 부분은 한 면을 가로 3단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많은 단어와 구절들을 한 페이지에 담으려 했고, ‘예문 제시’ 부분은 가로 2단으로 구성하여 상단에는 순한문, 하단에는 국한문으로 풀어쓴 설명을 싣고 있으며, 실제 문인들의 유명한 편지들의 경우는 1줄 세로쓰기의 기본 편집을 고수하였다.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고 내용에 맞는 편집 방식을 찾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④지송육의 『신편척독대방』의 체제는 훨씬 단순하다. 목차는 총 40장으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서두에서 결미까지 한 편의 편지를 쓰기 위한 투식구 제시 부분이며, 이후 35장까지는 ‘가정왕복문(家庭往復門)’, ‘족척왕복문(族戚往復門)’ 등 주제별 분류에 따른 예문 제시 부분, 그 뒤 40장까지는 부록이다. 이는 이 책이 크게 ‘투식구 제시’(1~5장), ‘주제별 예문 제시’(6~35장), ‘부록’(36~40장)이라는 세 부분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세한 목차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제1장 류취려구문(類聚麗句門, 26칙), 제2장 응용투식문(應用套式門, 6칙), 제3장 상중왕복문(喪中往復門, 6칙), 제4장 신식단찰문(新式短札門, 23칙), 제5장 삼당칭호문(三黨稱號門, 3칙), 제6장 가정왕복문(家庭往復門, 32칙), 제7장 족척왕복문(族戚往復門, 19칙), 제8장 가정상위문(家庭相慰門, 18칙), 제9장 조위문(弔慰門, 25칙), 제10장 축문문(祝文門, 34칙), 제11장 제문문(祭文門, 25칙), 제12장 만장문(輓章門, 15칙), 제13장 상복도식(喪服圖式, 9칙), 제14장 경하문(慶賀門, 4칙), 제15장 문위문(問慰門, 22칙), 제16장 사송문(詞訟門, 3칙), 제17장 시령문(時令門, 19칙), 제18장 실업문(實業門, 7칙), 제19장 권면문(勸勉門, 19칙), 제20장 천인문(薦引門, 11칙), 제21장 권견문(餽遺門, 33칙), 제22장 차구문(借求門, 13칙), 제23장 색취문(索取門, 5칙), 제24장 송별문(送別門, 8칙), 제25장 별장문(別章門,

5칙), 제26장 요약문(邀約門, 25칙), 제27장 서후문(敘候門, 6칙), 제28장 조방문(造訪門, 3칙), 제29장 청탁문(請託門, 13칙), 제30장 규계문(規戒門, 13칙), 제31장 문예문(文藝門, 6칙), 제32장 감사문(感謝門, 7칙), 제33장 청요문(請邀門, 15칙), 제34장 청첩식(請帖式: 普通請 10칙, 女客請 2칙), 제35장 장유문(長幼門, 3칙), 제36장 조선역대도(朝鮮歷代圖), 제37장 조선왕실계서도(朝鮮王室繼序圖), 제38장 선원보략(璿源譜略), 제39장 도군명칭위치관할구역급명산대천(道郡名稱位置管轄區域及名山大川), 제40장 시운선영(詩韻選英)

이러한 『신편척독대방』의 주제별 분류의 제목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첫째, 가족과 친지 사이에 오가는 편지들을 ‘가정왕복문, 족척왕복문, 가정상위문’ 등의 큰 항목으로 상세히 소개하여 주요한 편지 왕복의 대상을 가족친지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둘째, 상장례에 관계된 편지 분류가 ‘조위문, 축문문, 제문문, 만장문, 상복도식’ 등으로 5개 분류에 걸쳐 세분되어 소개되고 있는 점, 셋째, ‘실업문, 궤견문, 차구문, 색취문’ 등 물건의 매매와 주고받음, 중개, 돈 거래 등 실용적인 사안과 관련된 편지 예문을 다룬 주제 분류가 많다는 점, 넷째, 조선왕실과 관계된 부록을 세 종류나 실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결국 『신편척독대방』은 실제 편지 작성의 과정을 ‘투식구 제시’와 ‘예문 제시’의 두 부분으로 된 구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조선후기 간찰 교본인 『간식유편』과 『한훤차록』의 전통적인 체제를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10) 『간식유편』과 『한훤차록』은 투식구 제시 부분을 ‘보내는 편지(往書式/寄狀式)’와 ‘답장 편지(答書式/答狀式)’부분으로 보여준 뒤, 구체적인 주제와 상황별 예문들을 ‘국애류(國哀類), 부모상류(父母喪類), 방경류(邦慶類), 대과류(大科類)’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1920~1930년대

1920~1930년대 척독집으로 현전하는 목록은 총 43종이며¹¹⁾, 그 중 본 논문에서 살펴볼 이 시기의 주요 척독집은 다음과 같다.

- ① 盧益亨, 『註解附音新式尺牘』, 博文書館, 1920.
- ② 金東縉, 『註解附音尺牘大鑑』, 德興書林, 1921.
- ③ 金元祐, 『註吐常識實用尺牘』, 東昌書屋, 1922.
- ④ 池松旭, 『附音註釋新式金玉尺牘』, 新舊書林, 1923.
- ⑤ 趙男熙, 『新式備門尺牘』, 東洋書院, 1926.
- ⑥ 朴重華, 『最新獨習日鮮尺牘』, 彰文堂, 1929.
- ⑦ 姜殷馨, 『附音註解新式流行尺牘』, 大成書林, 1929.
- ⑧ 廣韓書林編輯部(金天熙), 『釋字附音最新金玉尺牘』, 廣韓書林, 1929.
- ⑨ 金東縉, 『無雙註解普通新式尺牘』, 德興書林, 1930.
- ⑩ 滙東書館編輯部(高丙教), 『大增補無雙金玉尺牘』, 滙東書館, 1932.
- ⑪ 盛文堂書店(李宗壽), 『普通流行成文尺牘』, 盛文堂書店, 1937.

1920~1930년대는 근대 척독집의 대유행 시기라고 할 만큼 다양한 척독집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시기이다. 지금까지 현전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 시기의 척독집만 해도 43종으로 단편 논문에서 그 실체를 일일이 검토하기에는 버거운 규모이며, 속속 새로이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척독집 자료들도 대부분 이 20~30년대의 척독집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또한 이 시기가 근대 척독집 발간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시기였음을 증명해준다. 이 중 본고에서 실제로 검토 대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위 11개의 목록이다.

이 시기의 주요 척독집 저자들은 대부분 이 당시 출판업계의 대표적인

11) 부록 참고.

운영자들의 가계와 겹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출판업계와 관련 있는 이 시기 척독집 저자들은 노익형(盧益亨, 1884년 경~1941), 고유상(高裕相, 1889년경~1962), 김동진(金東縉, 1885년 경~미상), 강의영(姜義永, 1897년경~1945), 고경상(高敬相), 고병교(高丙敎), 강남형(姜南馨), 강범형(姜範馨), 강은형(姜殷馨) 등이다. 이 중 노익형은 일제시대 최대의 출판사로 이름을 날린博文서관(博文書館)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며, 고유상은 그 부친 대부터 고제홍서포로 출발하여 10만부의 최고 판매고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자전석요(字典釋要)』를 출판한 회동서관(滙東書館)의 운영자였다. 강의영과 김동진 또한 각각 영창서관(永昌書館)과 덕흥서림(德興書林)을 운영했던 출판사 및 서점의 주인이었다. 고경상은 고유상의 동생으로 회동서관의 지점인 광익서관과 삼문사를 운영하였고, 고병교는 고유상의 장남으로 회동서관의 운영을 이어받았던 고병돈의 형이다. 강남형, 강범형, 강은형은 영창서관의 운영자인 강의영의 종질들로, 강은형은 대성서림, 강범형은 화광서림과 삼광서림을 각각 1920~30년대에 운영했고, 강남형은 1940년대에 진흥서림을 운영했다.¹²⁾

위 검토 목록에서 우선 살펴볼 것은 ①노익형의 『주해부음신석척독』, ④지송옥의 『부음주석신석금옥척독』, ⑦강은형의 『부음주해신석유행척독』, ⑧광한서림(김천희)의 『석자부음최신금옥척독』, ⑨김동진의 『무쌍주해보통신석척독』, ⑩회동서관(고병교)의 『대증보무쌍금옥척독』, ⑪이종수의 『보통유

12) 이들 출판사 운영자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 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2000. ; 이종국, 개화기 출판활동의 한 징험-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9호, 2005. 12. ; 최호석, 「지송옥과 친구서림」, 『고소설연구』 19집, 2005. ; 최호석, 「영창서관의 고전소설 출판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37집, 2010.5. 이들 연구에 따르면 근대 출판업자들의 생애사실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 지전, 잡화상, 포목상, 거간, 상점 직원 등의 상인 출신으로 출판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행성문척독』이다. 이 여섯 권의 목록을 한데 묶어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이들의 체제 및 편차 구성이 매우 비슷하고, 심지어 ⑩과 ⑪은 내용상 완전히 동일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 책들은 대부분 140~170면 내외의 얇은 분량의 척독서로, 목차는 대부분 없이 ‘손(孫)이 재외(在外)하여 조부(祖父)께 상(上)하난 서(書)’와 같이 낱낱의 편지 제목으로 나열되어 있다.¹³⁾ 이 척독서들에는 대략 150편 내외의 한주국종체(漢主國從體) 국한문편지 예문이 실려 있으며, 한문에는 모두 한글 독음이 표기되어 있고 본문 상단에는 본문 중 해설이 필요한 한자어를 한글로 풀이해 둔 주석을 달아놓았다.¹⁴⁾

이들 ①, ④, ⑦, ⑧, ⑨, ⑩, ⑪에서는 ‘투식구 제시’ 부분은 완전히 사라

13) 이 중 ①의 본문 목차를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父가 在外한 子에게 하는 書, 答, 子가 在外한 父에게 하는 書, 答, 父가 在外하여 在外한 子에게 하는 書, 答, 母가 在外한 子에게 하는 書, 答, 子가 在外하여 母에게 하는 書, 答, 祖父가 在外하여 孫子에게 하는 書, 答, 孫이 在外한 祖父에게 하는 書, 答, 祖가 在外하여 在外한 孫에게 하는 書, 答, 妻가 在外한 夫에게 하는 書, 答, 夫가 在外하여 妻에게 하는 書, 答, 兄이 在外한 弟에게 하는 書, 答, 弟가 在外한 兄에게 하는 書, 答, 從子가 三寸叔에게 하는 書, 答, 從子가 三寸叔母에게 하는 書, 答, 從兄이 遊學하는 從弟에게 하는 書, 答, 族兄이 族弟에게 하는 書, 答, 外祖父가 外孫에게 하는 書, 答, 外叔에게 하는 書, 答 …… 友人에게 祖考喪에 慰問, 答, 慰友人伯父喪, 答, 慰友人妻喪, 答, 慰友人兄弟喪, 答, 慰友人子喪, 答’

14) 본문의 표기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麥秋맥추가 乍涼사랑하니 晨夕居處신석 거처가 政難適宜당년척의라 未諳邇辰미암리신에 做況주황이 安吉안길하고 渾室혼실이 均宜否균의부아 懸念殊深현념수심이라 祖조난 一路平順일로평순하야 農墅농서에 抵到저도하니 主人주인이 好在호재하고 接待접대가 殊優수우하야 寢啖침답이 便宜편의하니 是所爲幸시소위행이라 某日爲始모일위시하야 獵夫렵부로 行蒐행수하야 即日즉일에 一巨鹿일거록을 捕獲포획하야 鮮血선혈을 頓喫돈긱이러니 日來試步일래시보에 脚力각력이 不困불곤하고 宿食숙식이 稍勝초승하니 大有效力대유효력이로라 姑留幾日고류기일하야 獵功렵공을 第觀데관하고 卽圖言旋즉도언선하리니 毋煩苦待무번고대하라 姑不具고불구하노라’ (이상 본문) ‘麥秋 四月, 未諳 알지못하난뜻, 做況 공부하난몸, 農墅 녹막, 寢啖 숙식, 行蒐 산양하난뜻, 鮮血 더운피, 頓喫 마니먹은뜻’ (이상 상단 주석) 『祖조가 在外재외하야 孫손의게 寄기하난 書서, 池松旭, 『附音註釋新式金玉尺牘』, 新舊書林, 1923. 3면.

지고 ‘예문 제시’ 부분만 나타나 있어 ‘편지 예문집’ 같은 책처럼 보인다. 책에 소개된 국한문 편지 본문을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의 설명도 없기 때문에 마치 본문을 베껴 쓰라는 용도의 책처럼 보일 정도이다. 이 책들은 부록도 거의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여섯 권의 책목록이 모두 공히 ‘서식대요(書式大要)·축문식(祝文式)·신식단찰(新式短札)·동서양연대표(東西洋年代表)’에 해당되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이들은 20년대 초반에서 30년대 후반까지에 걸쳐있는 책독서들이라는 점에서, 20~30년대에 가장 흔히, 가장 쉬운 방식으로 책독서가 편집, 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편저자의 특성이나 개성이 반영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책 편집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적당히 가감하여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②김동진의 『주해부음책독대감』과 ⑤조남희의 『신식비문책독』은 이러한 20~30년대의 주류 책독서의 흐름과는 달리 전통적인 책독서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들은 한글 독음을 달지 않았으며, 각각 288면, 406면의 두꺼운 편폭을 보여주는 책독서이다. ②의 경우 1장에서 3장까지는 ‘투식구 제시’, 4장에서 8장까지 ‘예문 제시’로 나뉘는 전형적인 책독서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¹⁵⁾, ⑤의 경우 또한 ‘상편(上篇)’은 투식구를, ‘하편(下篇)’은 주제별 예문을 보여주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¹⁶⁾ 특히 ⑤의 경우는 책독서의 투식구를 응용하여 실제 독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15) ②김동진의 『주해부음책독대감』에서 ‘투식구 제시’ 부분인 1~3장은 각각 ‘제1장 各黨稱號, 제2장 書面諸式, 제3장 月令’이며, ‘예문 제시’ 부분인 4~8장은 각각 ‘제4장 家庭往復, 제5장 鄉黨往復, 제6장 交際往復, 제7장 敬賀往復, 제8장 慰問往復’이다.

16) ⑤조남희의 『신식비문책독』에서 상편은 ‘書柬活套’라는 제목 하에 ‘通候例, 答候叙慰例, 探問例, 時令例, 保重例, 自敘例, 結尾例’ 등의 소제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소제목에서는 다시 ‘~門’의 형태로 세분되어 경우에 따라 쓸 수 있는 투식구들이 수십 개씩 소개되어 있다.

편지를 쓸 때의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덧붙이는 설명을 곳곳에 보여주고 있어서 실질적인 편지쓰기 교본으로서의 성격을 잘 구비한 예외적 책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이 외에 ③김원우의 『주토상식실용척독』은 88면의 가벼운 분량으로 일반적인 척독서 구성을 압축한 책이며, ⑥박중화의 『최신독습일선척독』은 일본어 편지쓰기를 위한 독학용 책이다. 이러한 책들은 20~30년대 척독서 저자 및 구성의 다양화를 보여주는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1940~1950년대

1940~1950년대 척독집으로 현전하는 목록은 총 4종이며, 그 중 본 논문에서 살펴볼 이 시기의 주요 척독집은 다음과 같다.

- ① 德興書林編輯部(金東縉), 『現代美文青年學生尺牘』, 德興書林, 1946.
- ② 著者未詳, 『現代美文學生日用片紙套』, 發行處未詳, 1946(?).
- ③ 張永九, 『家政尺牘』, 文昌社, 1955.

1940~1950년대에도 여전히 편지쓰기 교본으로 ‘척독집’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간간히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일제말 수탈과 해방 후 혼란 등이 더해져 전반적으로 출판업계가 침체에 빠진 시기였으며, 한문 편지교본으로써의 척독서 장르 또한 쇠퇴하는 시기였다. 현재까지 이 시기 척독집으로 존재가 발견된 것은 4종인데 본고에서는 그 중 3종을 검토하고자 한다.

17) 다음과 같은 해설이 그에 해당된다. ‘右는 結尾語니 相對者에 對하여 許多人事를 敘述하고 結尾에 至하여 些細한 事情까지 詳述함이니 事項에 因하여 一節을 用하고 下에 保重結尾語 或 簡單結尾語 兩門中 一語만 選擇하여 連續記入하나니’, 조남희, 『신식비문척독』, 60면.

우선 ①『현대미문청년학생척독』은 덕흥서림의 운영자였던 김동진의 편지이다. 총 118면이며 체제는 큰 분류로 ‘제1장 가정왕복(家庭往復)’에서 ‘제11장 통지부(通知部)’까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20~30년대의 주요 척독집들처럼 ‘객지(客地)에 재(在)한 조부(祖父)에게’ 처럼 낱낱의 편지 예문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다. 부록으로 ‘축문식(祝文式), 인칭도(人稱圖), 서식대요(書式大要), 제물진설(祭物陳設)하는 도식(圖式), 각도군청소재지리수일람표(各道郡廳所在地里數一覽表)’가 실려 있다.

②『현대미문학생일용편지투』는 표지, 목차, 판권지가 모두 일실된 상태이나 소장자가 만든 속표지에 ‘단군기원사이칠구년(檀君紀元四二七九年)’이라고 되어 있어 1946년 이전에 출판된 책임을 알 수 있다. 중간 부분 결절이라 전체 면수 또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상하권의 체제로 보이며, 하권이 118면인 것으로 보아 상권 또한 그와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짐작된다. 장별 구분 없이 ‘가정간왕복(家庭間往復), 사회상왕복(社會上往復)’ 등의 큰 분류 아래 ‘조부주전상답시(祖父主前上答是), 백부(伯父)가 사질(舍侄)에 기(寄)하는 서(書)’ 등으로 편지 예문이 실려 있다. 특기할 것은 상권의 경우 현토체 한문에 한글 독음이 작은 글씨로 달려 있는 전형적인 한주국중체의 국한문 표기이나, 하권의 경우는 한글이 주가 되고 한문이 작은 글씨로 달려있는 국주한중체(國主漢從體) 표기의 편지들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부록으로는 ‘각당칭호, 삼당의 복 입는 법, 사주, 혼서식, 단자 및 지방 쓰는 법, 동서양연대표’가 실려 있다.

③『가정척독』은 유일한 50년대 척독집으로, 1955년 문창사(文昌社)에서 발행되었으며 편집인은 ‘장영구(張永九)’이다. 이 책은 자연스러운 구어체의 한글 편지 예문을 싣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척독집’이라는 제목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제는 ‘사교에 관한 것, 축하의 편지, 위문의 편지’ 등의 큰 분류가 있지만 ‘조부님께, 아버지께, 객지의 아버지

계' 등의 제목을 단 편지예문들이 나열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부록으로 는 '궁합 보는 법, 육십갑자 병납음(並納音), 아이벤 데 남녀 이는 법, 칭 명법, 토정비결, 가정단방치료법' 등의 잡다한 지식들과 '축문식(祝文式)' 이 실려 있다.

3. 시대별 흐름에 따른 근대 척독집의 변화 양상

1) 표기 체계 및 권장되는 한문 편지규범의 변화

이 장에서는 190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의 근대 척독집의 시대별 흐름 에서 읽을 수 있는 척독집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시대별 척독 집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표기체계 및 권장되는 한문편지의 기 준 변화라는 점이다. 190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의 근대 척독집은 대체 로 순한문 표기에 가까웠으며 사례로 제시되는 편지의 표기방식 역시 한 문체였다. 앞에서 1910년대의 대표적인 척독서로 예를 든 지송옥의 『신편 척독대방』과 현재의 『척독대성』에서의 본문 표기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地隔一舍三十里爲一舍에 阻候累朔호오니 恒切慕頌이오며 伏不審體 節이 萬安호시니잇가 伏禱區區오이다 姨姪은 省事粗寧호오니 伏幸이오 며 向教姨從弟의 入學事는 學生募集이 似在本月中旬이이오니 下諒호오 셔 趁其時起送이 若何잇가 不備上候호노이다¹⁸⁾

18)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삼십리 멀리 떨어져 있어 몇 달 동안 소식이 막혔으니 항상 간절히 그리워하였습니다. 엿드리건대 살펴드리지 못한 기거는 두루 안녕하시은지 요. 엿드려 구구히 바라는 뿐입니다. 이종조카는 살피는 일들이 대략 평안하니 다행입니 다. 지난 번 이종아우의 입학 일은 학생 모집이 이번 달 중순이옵니다. 내려 살펴서서

別將三載, 懷想高情, 無時去念也, 但聞邇來 動止榮膺多福, 深爲知己者慶. 動止는起居오 多福은 詩에 詒爾多福이라. (上段) 別흔지 將히 三載라 高情을 懷想함의 時時仰念이오며 但聞하니 邇來에 動止가 多福을 榮膺하시다 ㅎ오니 深히 知己를 爲하야 慶호노이다. (下段)¹⁹⁾

첫 번째 예문은 『신편척독대방』 중 ‘족척왕복문(族戚往復門)’에 실려 있는 편지 중 하나로, 이종조카가 삼촌에게 안부를 물으며 조카동생의 입학 위해 자기 집으로 동생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예문은 『척독대성』 중 ‘문후문(問候門)’에 실려 있는 편지로, 만난 지 오래 된 친구의 경사 소식을 듣고 축하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편지의 내용은 친지와 친구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일상사를 다루고 있으나, 그것의 표기방식은 첫 예문의 경우 현토체 한문, 두 번째 예문의 경우 순한문과 현토체 한문의 병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두 번째 예문은 주석에 『시경』의 ‘천보(天保)’편을 인용하여 단어를 설명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고적인 단어의 사용을 보여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아울러 두 책의 경우 모두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대체로 각각의 상황과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하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을 담고 있으며 본문의 길이 또한 짧다. 이러한 표기 체계 및 단어, 문장체의 선택은 1910년대까지의 척독집에서 한문편지 규범으로 장려된 편지 문장은 매우 엄격하고 의고적이며 의례적인 단문의 한문문장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기 척독집 저자들의 인식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때에 맞춰 보내주심이 어떠하신지요 갖추지 못하고 올리나이다. 모년 모월 모일 이종조카 아무개 편지 올림.’ 「姨姪上姨叔, 池松旭, 『新編尺牘大方』, 新舊書林, 82면.
19)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헤어진 지 장차 삼년이라. 높은 정을 회상함에 때때로 우러러 그리워합니다. 요즘 들으니 신변에 영광된 큰 복을 받으셨다 하니 지기를 위하여 깊이 축하드립니다.’ 「詢動履」, 玄采, 『尺牘大成』, 大昌書院, 中篇 20면.

김우균과 현채는 특히 각자 자신의 척독집에서 완연한 복고주의적 문장 성향과 순한문 문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1900년대의 대표적 저자인 김우균은 그의 『척독완편』 서문에서 척독은 ‘고문(古文)의 여파에서 나온 것이며 서권기(書卷氣)가 담겨있어야 한다’는 복고적인 주장을 펴 으며²⁰⁾, 1910년대의 대표적 척독집 저자인 현채 또한 그의 『척독대성』 서문에서 ‘해내존지기, 천애약비린(海內存知己, 天涯若比鄰)’이라는 왕발(王勃)의 유명한 시구를 빌려 척독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20~30년대에는 약간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은 여전히 한문체 문장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국문 독음 표기가 반드시 뒤따르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1920~30년대의 주류 척독서로 살펴본 노익형의 『주해부음신식척독』의 본문을 일례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原來兄弟원리형대의 至極지극한 情理정리난 一時일시도 分離분리함을 願원치 아니하나 今汝금여난 天民턴민의 職分직분을 修수코자하여 人生萬能인성만능의 着席착석되는 學業학업을 爲위하여 他郷타향에 遠離원리 하니 放浪방랑히 他郷타향에 流落류락함과는 懸殊현주하나 有時孔懷유시 공회난 伴秋益切반추의절이로다 未諳秋清미암추청한대 客況객황이 安迪안덕하고 課工과공은 果有前進之望과유전진지망하며 主人주인은 待人凡節디인범절이 果溫良耶과온량야아 爲念不黜위념불션이로다 且聞學校난 體育運動체육운동이 有유하여 變弱爲强변약위강이라 하니 汝여의 近間撮影근간촬영한 寫眞一幅사진일폭을 付送則汝부송즉여의 容貌용모를 可가

20) 김우균의 척독 인식의 복고적 성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홍인숙, 「김우균의 『척독완편』 서발문을 통해 본 근대 척독집 편찬과정 및 척독 인식」, 『한국학연구』 3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9.

21) ‘夫尺牘一書, 非直敍寒暄瀉哀慶而已, 其能爛於此者, 靈犀相通, 金蘭可結, 卽海內知己, 天涯比鄰也’, 玄采, 「尺牘大成序」 『尺牘大成』, 大昌書院.

히 見而知之견이지지할 터이오 最近學科최근학과의 作文幾篇작문괴편을
亦送之역송지하야 看驗優劣간험우열게 하야라 舍兄사형은 秋事추사에 汨
沒골몰타가 近得少閑근득소한하야 農牛농우를 改備개비코자 明再明間명
지명간에 親往安城市친왕안성시하야 限今晦間歸來한금회간귀리코자하기
略付數字략부수자하야 通信통신하고 不宜불선하노라²²⁾

위 예문은 형이 공부하러 타향에 간 아우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의 편지이다. 앞서의 순한문이나 현토체 한문과는 달리 국한문체의 문장에 우리 말 어순으로 쉽게 풀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한문 옆에는 국문 독음이 일일이 부기되어 있어 쉽게 그 뜻을 짐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듯 1920~1930년대 한문 문장체의 변화는 그 이전 시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반드시 번역을 요했던 이전 한문 문장과는 달리, 읽으면서 그 어의가 대체로 전달되는 수준의 국한문체 문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편지의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어구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자신과 상대방의 안부를 전하면서 구체적인 일상 내용이 반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본문 길이 또한 이전에 비해 길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기 체계 및 문체의 변화는 1920~30년대에 들어와 권장된 한문의 수준이 예전보다 쉽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과, 이 시기 척독서가 한문문장의 학습 차원에 있어서 한글의 학습보조 기능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척독 인식에 있어서도 앞선 시기와 상당히 달라진 양상을 보여준다. 1920~30년대에는 근대 척독집 저자들의 척독 인식을 읽어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인 서문이 아예 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

22) 「兄 형이 在外지외한 弟데에게 하는 書서, 盧益亨, 『註解附音新式尺牘』, 博文書館, 1920. 22~23면.

에서 검토대상으로 삼은 척독집 자료 11권 중 서문이 달려 있는 경우는 단 두 권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척독은 초학자들을 위한 작은 기술일 뿐’이라는 상투적인 내용의 반복에 그치고 있다. 이는 척독집 저자들의 저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매우 약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실제 이 시기 주류 척독서들의 체계가 대체로 비슷해지고 있었다는 점, 그 내용이 상호 중첩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었다는 점에 더하여, 심지어 똑같은 내용을 다른 제목의 책으로 펴내는 관행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해석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준다 하겠다.²³⁾

2) 전통 지식의 근대적 대중화 흐름 반영

근대 척독집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부록’이다. 부록은 원래 무엇인가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부수적인 영역이라고 보기 쉽지만, 어떤 책도 본문의 내용과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부록으로 신지는 않으며, 부록 부분은 대개 본문의 성격을 일정하게 보완하며 보충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 척독집들이 부록에 어떤 내용을 선택하여 수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척독서의 또 다른 실용서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시대별 근대 척독집의 부록의 변화가 전통 지식의 근대적 변용 과정을 잘

23) 근대 척독서의 이러한 저술방식은 근대 작문교본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근대초 실용서 및 교본의 저술 방식 일반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실지응용작문대방』은 …… 수록된 문장이나 작문의 요령에 대한 서술 등이 대부분 앞서 출간된 작문교본들에서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그러나 그 편찬은 기계적인 표절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을 가진 취합이며 한문으로 된 서술을 국한 문체로 바꿔서 썼기에 근대 초기 글쓰기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임상석, 앞 논문, 2011, 466면 참고.

드러내 준다고 보고, 그러한 면모를 살펴보려 한다.

실제로 근대 척독집의 부록에 실려 있는 지식들은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상당히 크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1900~10년대의 대표적인 척독집인 김우균의 『척독완편』, 지송욱의 『신편척독대방』, 현재의 『척독대성』에 실려 있는 부록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척독완편』 | 고명필초찰(古名筆草札), 명가법첩(名家法帖), 시품취진(詩品萃珍) |
| 『신편척독대방』 | 도군명칭위치관할구역급명산대천(道郡名稱位置管轄區域及名山大川), 선원보략(璿源譜畧), 시운선영(詩韻選英), 고법첩초간(古法帖草簡) |
| 『척독대성』 | 지나역대명인척독(支那歷代名人尺牘, 130칙), 해린척독(海隣尺牘), 구식척독활투(舊式尺牘活套) |

『척독완편』의 ‘고명필초찰’, ‘명가법첩’과 『신편척독대방』의 ‘고법첩초간’은 중국 역대 문인들의 초서 편지를 영인해 놓은 것이며, 역시 같은 두 책에서의 ‘시품취진’과 ‘시운선영’은 한시의 운자에 해당되는 글자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들 부록의 기능과 목적은 명백하게 한문학 지식의 전수에 있는 것으로, 초서 편지를 읽고 배끼면서 초서체와 유명 서찰의 문장을 동시에 학습하게 하고, 아울러 한시의 성운을 보다 용이하게 운용하여 한시 창작을 돕게 하려는 것이다. 『척독대성』의 부록인 ‘지나역대명인척독’과 ‘해린척독’ 또한 역대 중국의 유명 문인들의 명문장을 싣고 있는 바, 이 시기 척독자들이 지향하고 중시했던 지식의 성격이 전통적이고 복고적인 한문지식 위주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²⁴⁾

24) 이는 이 시기 척독집의 전반적인 표기체계가 순한문에 가까웠으며, 권장하는 한문 편지의 규범 역시 엄격하고 의고적인 한문체였다는 사실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록의 성격은 1920~30년대에는 크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 척독집들의 부록에는 거의 빠짐없이 ‘동서양연대(비교)표’가 등장하는가 하면, 각종 서식과 축문식, 제문식 등이 들어있거나, 또는 원래 척독집의 ‘투식구 제시’ 부분에 있어야 했던 ‘각당칭호’가 부록으로 실려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20~30년대 척독서들의 부록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해부음신식척독』(1920)

신식단찰(新式短札), 축문식(祝文式), 동서양이백년간연대급연령대조표(東西洋二百年間年代及年齡對照表)

『부음주해척독대감』(1921)

동서양연대대조표(東西洋年代對照表)

『부음주석신식금옥척독』(1923)

서식대요(書式大要), 축문식(祝文式), 신식단찰(新式短札), 동서양연대표

『신식비문척독』(1926)

인용고어석의(引用古語釋義), 역조선역대연혁급세손(歷朝鮮歷代沿革及世孫), 선원보략(璿源譜畧), 관혼상제절략(冠婚喪祭節畧)

『부음주해신식유행척독』(1929)

서식대요(書式大要), 축문식(祝文式), 신식단찰(新式短札), 동서양연대표

『석자부음최신금옥척독』(1929)

서식대요(書式大要), 축문식(祝文式), 동서양연대표

『무쌍주해보통신식척독』(1930)

축문서식(祝文書式), 동서양연대표, 조선각도군인구수급정도리수(朝鮮各道郡人口數及程道里數), 세계각국명수부급인구표(世界各國名首部及人口表)

『대중보무쌍금옥척독』(1932)

축문식(祝文式), 신식단찰(新式短札), 현행신식혼상(現行新式婚喪), 동서양연대일람표

1920~30년대 척독집들은 전반적인 체제 및 내용이 공유되었던 것처럼 부록들 또한 같은 내용을 신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척독집에서 ‘축문식’과 ‘동서양연대표’를 신고 있는데, 축문식은 상례와 제례에서 쓰는 축문 형식을 분리해서 신고 있으며 동서양연대표는 간지와 일본 연호, 조선 개국연호, 중국 연호, 서력을 나열한 표로 되어 있다. 이 외에 ‘서식대요’와 ‘신식단찰’은 ‘미심류(未審類), 시진류(時辰類), 기체류(氣體類)’ 등 구절 별 투식구와 ‘삼당칭호(三黨稱號)’ 등 명칭 모음의 내용으로, 이 또한 대동소이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1940~50년대의 척독집의 부록은 여기서 더 실용화되고 세분화된 내용을 부록으로 신고 있다. 40년대 척독집에는 ‘삼당의 복(服)입는 법, 부고(訃告)·지방(紙榜)쓰는 법, 제물차려논법²⁵⁾, ‘축문식(祝文式), 가정간인칭도(家庭間人稱道)’²⁶⁾ 등이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50년대 척독집인 『가정척독』에는 ‘궁합보는 법, 칭명법, 가정단방치료법’ 등의 잡학 지식과 함께 ‘축문식’과 ‘민원계서식(民願屆書式)’이 실려 있다.

1920년대 이후 척독집 부록의 변화 양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축문식과

25) 미상, 『현대미문학생일용편지투』, 1946(?), 부록.

26) 덕흥서림(김동진), 『현대미문청년학생척독』, 덕흥서림, 1946. 부록.

제문 등 상제례 중심의 서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한문편지의 투식과 명칭에 대한 지식이 부록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외 '사주, 단자, 지방 쓰는 법에서 제물진설도' 등으로 전통적 지식이 단편화되어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대 책독집이 '편지쓰기의 학습 교본'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기능적·실용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되면서, 대중들에게 전통과 근대의 단편적 지식들을 망라하는 잡학사전 같은 성격의 책으로 변화해가는 도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책독서의 시대별 변화가 곧 전통 지식의 근대적 대중화, 또는 전통 지식의 통속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근대 책독집이 1900년대 이후 1950년대까지 꾸준히 발간되어 온 정황을 추적하여, 각 시대별 책독집의 간행 현황과 변화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책독집들의 저자에 대한 사항과 체제상 특징을 정리하고, 시대별 책독서들의 변화의 양상을 읽어보고자 하였다.

1900~10년대 책독집들은 두꺼운 분량의 전문 책독서를 표방한 책들로, '투식구 제시'와 '예문 제시'의 두 부분의 체제적 분류를 갖고 있으며 순한문의 한문 편지규범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20~30년대는 책독집의 대유행 시기라 할 만큼 많은 종류의 책독서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로, 대부분 출판사 운영자들의 가게에서 많은 책독집 저자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책독서는 본격적인 한문 편지교본이나 학습서라기보다

는 가벼운 ‘편지예문집’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으며, 훨씬 쉬운 우리말 어순의 국한문체 문장으로 바뀐 편지 예문들을 싣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척독집들은 기존의 책 편집을 그대로 옮기거나 적당히 가감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활발하게 내용이 공유되고 재생산되어 많은 종류의 책들이 발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40~50년대는 근대 척독집의 쇠퇴기로, 앞 시기의 척독집 체제에서 국문의 기능과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별 척독서들의 변화 양상은 곧 ‘권장되는 한문 편지규범의 변화’라는 측면과 ‘전통 지식의 근대적 대중화’라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앞으로의 근대 척독집 연구에서는 체제상의 문제나 척독 인식, 부록에 다루어진 지식의 성격 문제를 넘어서, 대중들에게 ‘한문편지’라는 전통 지식의 학습이 왜 그토록 욕망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척독집들이 보여주고 있는 ‘고정된 예문 제시의 경향’과 ‘국한문 문체’에 대한 차원에서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들에게 끝까지 중시되었던 전통적 지식이 상제례 중심의 형식적이고 단편화된 지식이었던 점과 관련하여, 근대 시기 내내 척독서를 열렬하게 소비한 대중들의 욕망의 성격을 해명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용선, 『근대적 글쓰기의 탄생과 문학의 외부』, 한국학술정보, 2007.
 김경남, 「1920~30년대 편지글의 형식과 문체 변화」, 『겨레어문학』 41집, 겨레어문학회, 2008. 12.
 김동준, 「簡牘精要 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양식 연구(1) - 근대 서간의 형성과 양식적 특징」, 『민족문학사연구』 39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4.
-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양식 연구(2) - 근대 서간텍스트의 역사적 변천과 문학사적 위상」, 『현대소설연구』 4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12.
- 김성수, 「근대 초기의 서간과 글쓰기교육 - 독본, 척독, 서간집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4.
- 김성수, 「근대 서간의 매체별 존재양상과 기능」, 『현대문학의 연구』 4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 김효경, 「18세기 간찰교본 簡式類編 연구」, 『奎章閣』 9집, 2003.
- 류준경, 「방각본 간찰교본 연구」, 『漢文古典研究』 18, 2009.
- 박대현,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 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2000.
- 이종국, 「개화기 출판활동의 한 징험-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9호, 2005. 12.
- 임상석, 「1920년대 작문교본, 『實地應用作文大方』의 국한문체 글쓰기와 한문 전통」, 『우리어문연구』 39집, 우리어문학회, 2011.1.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4.
- 최호석, 「지송육과 신구서림」, 『고소설연구』 19집, 2005.
- 최호석, 「영창서관의 고전소설 출판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37집, 2010.5.
- 홍인숙, 「근대 척독집 연구 - 김우균의 『척독완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0.12.
- 홍인숙, 「김우균의 『척독완편』 서발문을 통해 본 근대 척독집 편찬과정 및 척독 인식」, 『한국학연구』 3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9.

<부록> 근대 척독집 목록 (추가 발견된 11종 밑줄 표시)

- (1) 金雨均, 崔性學, 『尺牘完編』, 博文社, (1899)/1905/1908/1912/1916/ 1937.
- (2) 李鼎煥, 『國文句解新撰尺牘』, 大昌書院, 1905. (『鮮文句解新撰尺牘』, 大昌書院, 1913)
- (3) 唯一書館 編(南宮濬), 『增補尺牘』, 唯一書館, 1910.
- (4) 安泰瑩, 『備文尺牘』, 廣德書館, 1910.
- (5) 南宮濬, 『增補最新尺牘』, 唯一書館, 1911.
- (6) 光東書局編輯部 編, 『改正增補日鮮備門尺牘』, 光東書局, 1913.
- (7) 白潤珪, 『精選尺牘』, 雲林書院, 1913.
- (8) 唯一書館編輯部, 『新訂尺牘全書』, 唯一書館, 1913.
- (9) 현채, 『尺牘自解』, 대창서원, 1913.
- (10) 한홍교, 『模範尺牘大方』, 경성서관, 1913.
- (11) 具義書, 『海東名家尺牘』, 光東書局, 1914
- (12) 鄭雲復, 『獨習日鮮尺牘』, 일한서방, 1915.
- (13) 池松旭, 『新編尺牘大方』, 新舊書林, 1915/1916.
- (14) 未詳, 『旅行必攜懷中尺牘』, 한국도서주식회사, 1916.
- (15) 玄公廉, 『日鮮尺牘大全』, 普及書館, 1917/ 大昌書院, 1923.
- (16) 博文書館編輯部, 『近世新編尺牘』, 博文書館, 1917.
- (17) 金雨均, 『文明尺牘』, 刊行地不明, 1917.
- (18) 玄采, 『尺牘大成』, 大昌書院, 1917/1919.
- (19) 未詳, 『備註時行簡牘』, 朝鮮圖書株式會社, 1918.
- (20) 盧益亨, 『備音註解時體尺牘』, 博文書館, 1919.
- (21) 정경석, 『京鄉通商 旅行尺牘』, 광문서시, 1919.
- (22) 盧益亨, 『註解附音新式尺牘』, 博文書館, 1920.
- (23) 郭瓚, 『文字註解高等尺牘』, 寶文館, 1921.
- (24) 金東縉, 『註解附音尺牘大鑑』, 德興書林, 1921.
- (25) 趙男熙, 『新式備門尺牘』, 東洋書院, 1921/1926.

- (26) 김원우, 『註吐常識 實用尺牘』, 동창서옥, 1922.
- (27) 金雨均, 『悔責花界進明尺牘』, 新舊書林, 1922.
- (28) 姜義永, 『實用註解新式普通尺牘』, 永昌書館, 1922.
- (29) 高裕相, 『最新尺牘大觀』, 匯東書館, 1923.
- (30) 金雨均, 『懸吐句解尺牘合璧』, 新舊書林, 1923.
- (31) 池松旭, 『附音註釋新式金玉尺牘』, 新舊書林, 1923.
- (32) 高裕相, 『附音註解最新新尺牘』, 匯東書館, 1923.
- (33) 李鍾楨, 『釋字附音最新金玉尺牘』, 光東書局, 1925.
- (34) 姜殷馨, 『附音註解新式流行尺牘』, 大成書林, 1925.
- (35) 趙男熙, 『新式備門尺牘』, 刊行地不明 → 東洋書院, 1925.
- (36) 韓興教, 『尺牘大方』, 京城書籍共同出版社, 1925/1927.
- (37) 金東縉, 『增註附音流行金玉尺牘』, 德興書林, 1926.
- (38) 未詳, 『酬世尺牘』, 朝鮮圖書株式會社, 1926.
- (39) 李冕宇, 『註解附音最新文明尺牘』, 永昌書館, 1927.
- (40) 池松旭, 『附音註釋新式金玉尺牘』, 大同印刷社, 1927/1929.
- (41) 池松旭, 『新式金玉尺牘』, 新舊書林, 1927.
- (42) 姜義永, 『增補流行新式普通尺牘』, 永昌書館, 1927.
- (43) 姜義永, 『最新無雙日用大簡牘』, 刊行地不明, 1928.
- (44) 姜義永, 『註解附音無雙金玉尺牘』, 永昌書館, 1928.
- (45) 林南日, 『註解附音新式簡牘便覽』, 太華書館, 1928.
- (46) 박중화, 『最新獨習 日鮮尺牘』, 창문당, 1929.
- (47) 강은, 『附音註解 新式流行尺牘』, 대성서림, 1929.
- (48) 廣韓書林編輯部(金天熙), 『釋字附音最新金玉尺牘』, 廣韓書林(三文社), 1929.
- (49) 金東縉, 『無雙註解普通新式尺牘』, 德興書林, 1930.
- (50) 尹用燮, 『가정실용반초언문척독』, 世昌書館, 1931.
- (51) 姜義永, 『(註解附音)無雙金玉尺牘』, 永昌書館, 1932.
- (52) 高丙教, 『大增補無雙金玉尺牘』, 匯東書館, 1933.

- (53)李哲應, 『附音註解新式青年尺牘』, 和光書林, 1933.
- (54)申泰三, 『註解附音模範金玉尺牘』, 世昌書館, 1934.
- (55)金東縉, 『增註附音流行金玉尺牘』, 德興書林, 1934.
- (56)李鍾國, 『增補附音流行金玉尺牘』, 德興書林, 1934.
- (57)未詳, 『註解附音模範金玉尺牘』, 世昌書館, 1934.
- (58)姜殷馨, 『註解附音新式大成簡牘』, 大成書林, 1934.
- (59)姜範馨, 『註解附音特別金玉尺牘』, 和光書林, 1936.
- (60)李宗壽, 『大增補無雙金玉尺牘』, 盛文堂書店, 1936.
- (61)李宗壽, 『普通流行成文尺牘』, 盛文堂書店, 1936.
- (62)高敬相, 『頭註附音無雙大金玉尺牘』, 三文社, 1937.
- (63)高敬相, 『附音註解新式有名尺牘』, 三文社, 1937.
- (64)高敬相, 『新式流行普通尺牘』, 滙東書館, 1937.
- (65)姜南馨, 『註解附音無雙金玉尺牘』, 永昌書館, 1946.
- (66)金東縉, 『現代美文青年學生尺牘』, 德興書林, 1946.
- (67)미상, 『現代美文學生日用片紙套』, 발행처미상, 1946.
- (68)저자미상, 『가정척독(일상생활의 백과사전)』, 발행처미상, 1955.
- (69)金東縉, 『二十世紀英雄尺牘』, 刊行地不明, 刊行年不明.
- (70)申佶求, 『最新無雙日用大簡牘』, 永昌書館, 刊行年不明.
- (71)朴垞杓, 『青年實用無雙新式簡牘』, 刊行地不明, 刊行年不明.
- (72)저자미상, 『改正增補 日鮮備門尺牘』, 발행처미상, 연대미상.
- (73)저자미상, 『家庭諺文 最新現行尺牘』, 발행처미상, 연대미상.
- (74)저자미상, 『海東名家尺牘』, 발행처미상, 연대미상.

ABSTRACT

The Publishing Status and the Process of Alteration of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according to the Publications from 1900s to 1950s²⁷⁾

Hong, In-Sook

This thesis has examined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constantly issued from 1900s to 1950s. The publications had particular publishing status by the period and the process of alteration. It was required to organize the information of the authors and the features of the system during the period, and to observe the process of alteration of the publications.

The publications of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from 1900 to 1910 are the professional textbooks for practicing to write letters in Chinese. It suggests the original criteria of writing letters in Chinese. The ones published from 1920 to 1930 are more of guidebooks for writing letters, filled with example sentences of mixed Korean-Chinese characters arranged in Korean style. Last 10 years of modern times (1940 to 1950) is the period of decline of the publications that the roles and the functions of Korean grammar had tightened up.

The process of alteration on the publications shows the changes of recommended style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It gradually avoids the original Chinese writing styles and widely used Korean language to help readers understand Chinese writing styles. In addition, the alteration reflects 'modern popular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the period. The appendix of the publications proves the phenomenon. This part of the publications plays a role of showing the fragmentation of traditional

27)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32-2011-0786-1-2)

knowledge and practicality of modern knowledge.

In future, it is critical to study to explain the desire of the public which had showed an enthusiastic response to the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in Chinese in modern times.

Key Words Modern Study Materials for Writing Letters, Letters in Chinese, 『Chuk-dokwanpyun(尺牘完編)』, 『Chukdokdaesung(尺牘大成)』, 『Sinpyunchukdokdaebang(新編尺牘大方)』, Kim Woo Gyun(金雨均), Hyun Chae(玄采), Ji Song Wook(池松旭), writing styles, traditional knowledge.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05